

이츠코아틀과 모테수마 1세 시기의 정치·사회 개혁*

이종득**

단독/덕성여자대학교

Lee, Jong-Deuk (2011) "The Socio-political Reforms in Government Carried Out by the Mexica Kings Itzcoatl and Moctezuma I"

ABSTRACT

The object of this investigation is to inquire into the social-political reforms of two Mexica kings, Itzcoatl and Moctezuma, and also to analyze the social-political changes that took place in Tenochtitlan in regards to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 of *calpulli* from the kingdom's foundation until the reign of the third king, Chimalpopoca.

After the victory against the Tepaneca city states, King Itzcoatl began his political reform by creating *tlaxxitlan*, with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system for choosing kings and consolidating the jurisdiction of the royal family and the central organization known as *teccalli*, that existed in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every *calpulli*.

As the king and his family consolidated their political-economic power on the basis of a monopoly of *yaotlalli*, the leaders of *calpulli* lost their political-military independence, and were transformed into mere government officials. Furthermore, a military group called *telpochcalli*, traditiona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alpulli*, assumed a different aspect as a military system under th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 *calpulli* lost its traditional value based on consanguinity and identical religious beliefs, and instead turned into "an administrative barrio".

The reforms undertaken by Itzcoatl and Moctezuma opened up a gate for the Mexica commoners that allowed social ascension through military merits acquired during wars, which was highly important in the Tenochtitlan social system based on castes. Not only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but also the commoners competed intensely for the acquisition of military merits, thus making it possible fo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uks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10.

** Jong-Deuk Lee is professor of Spanish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Korea (Email: leejong@duksung.ac.kr).

Tenochtitlan to be reborn as a military city state.

Key Words: Calpulli, Mexico, social-political organization of Tenochtitlán, social-political reforms of Itzcoatl and Moctezuma I / 칼풀리, 메쉬카, 테노초티틀란의 정치·사회조직,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1세의 정치·사회 개혁

서 문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란(Durán)이 남긴 기록에서 ‘생똥맞은’ 내용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아스카포살코(Azcapotzalco)와의 전쟁을 앞두고 귀족(pilli)과 평민(macehualli)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돌출되었다.¹⁾ 그런데 전쟁을 감행하려는 귀족들에게 평민들이 완강히 반대했고, 양 집단 간에 ‘이상한’ 계약이 맺어졌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왕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평민들의 손에 맡길 것이며, 자신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씹어 먹는 복수를 하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각종 노역과 공물을 바치고, 건물을 축조해주며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신들의 딸과 여형제, 그리고 여조카들을 귀족들에게 바쳐 봉사하도록 할 것이며, 전쟁이 발생하면 각종 장비와 무기, 그리고 식량을 운반하며 귀족들을 어디에서든지 도울 것이고 노예가 되어 자손대대로 귀족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1995, 126). 당시 계약 내용을 분석해 보면, 평민에 대한 귀족의 정치적인 장악력이 취약해 보이고 양 집단 간의 위계질서도 불분명하다. 더 나아가 왕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때가 이츠코아틀(Itzcoatl)이 4대 왕으로 갓 즉위한 1427년이었고, 메쉬코-테노초티틀란(México-Tenochtitlan)을 건국(1325년)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도시국가의 기틀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여러 자료들의 내용을 재검토해 본 결과,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Moctezuma Iluicamina) 왕 시기에 왕권이 강화되었고, 귀족과 평민 사이의 정치·사회적인 위계질서가 재정립되며 전통적인 칼풀리

1) 자료마다 귀족과 평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단·복수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pipiltin과 macehualtin은 각각 pilli와 macehualli의 복수형이다.

의 특성이 상당부분 변했던 정황을 산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카포살코뿐만 아니라 다른 테파네카(tepaneca)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멕시코 분지 내의 패권을 일순간에 차지했던 테노츠티틀란의 정치·사회조직이 이츠코아틀이 왕으로 즉위한 초기까지도 이렇게 취약하고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스러웠다. 물론 레온 포르티야(1990, 96)나 피냐 찬(1993, 227) 등과 같은 저명 연구자들이 이미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 이후에 메쉬카의 정치·사회체계가 급격히 변화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스페인 정복 초기를 중심으로 메쉬카의 정치·사회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밴델리(Bandelier) 이후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실행된 개혁과 이에 따른 정치·사회체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³⁾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이츠코아틀 왕 이전 시기에 나타난 칼풀리(calpulli)의 특성과 정치체제의 성격을 사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정의했다.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의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왕위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텍칼리(teccalli)와도 관련된 틀락쉬틀란(tlacxitlan)을 연구하며 설립배경과 그 의미를 규명했다. 그리고 칼풀리 내의 텍칼리가 강화되면서 이츠코아틀 왕 이전 시기의 집단지도체제가 급격히 힘을 상실하고 왕권이 강화된 원인을 규명했다. 사회개혁과 관련해서는 텔포츄칼리(telpochcalli)가 중앙조직과 연계된 하부조직으로 전환하고, 전문 직종별 칼풀리가 형성되면서 전통적인 칼풀리 개념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화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신분사회가 정착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연구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은 메쉬꼬-테노츠티틀란으로 제한했다.⁴⁾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가 제한적이고 논문의 목적에 부응하는 내용 또한

2)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 왕은 스페인 정복 초기의 목테수마 쇼코요신(Moctezuma Xocoyotzin) 왕과 구분하기 위해 유럽의 호칭 방식에 따라 목테수마 1세라 불리기도 한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목테수마 왕으로 표기한다.

3) 참고로, 멕시코에서 메소아메리카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학술지와 잡지로는 『나우아틀 문화 연구』(*Estudios de cultura náhuatl*)와 『멕시코 고고학』(*Arqueología Mexicana*)이 있다. 『나우아틀 문화 연구』는 멕시코 국립대(UNAM)의 역사연구소(Instituto de Investigaciones Históricas)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로 가리바이(Ángel Ma. Garibay K) 교수와 레온 포르티야(Miguel León-Portilla) 교수가 창간했다. 1년에 4회 발간되는 『멕시코 고고학』잡지는 메소아메리카의 고고학 연구와 발굴 현황을 보여주는 연구지이다.

4) 메쉬꼬-테노츠티틀란에서 발생한 정치·사회구조의 변화가 멕시코 분지의 예측도시나 정복된 도시국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편중적이거나 산발적이어서 연구하는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 정복 초기의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사료가 존재하지만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료는 두란의 기록이 유일해서 매우 조심스러웠다. 따라서 두란의 기록을 중심으로 다른 사료들을 비교하며 주제별로 ‘기록’을 찾아내고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조하며 재해석하는 방식을 택했다.⁵⁾ 여러 한계가 있지만, 비교적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의 개혁을 통해 칼폴리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상당부분 해체되며 테노츠틸란이 왕 중심의 도시국가 형태로 전환되는 초기 과정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보인다. 그리고 스페인 정복 초기의 메쉬카 정치·사회체제와 비교하면 그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츠코아틀 왕 이전 시기

칼폴리의 특성

테노츠틸란 정착 초기에 나타나는 메쉬카의 칼폴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이주 집단의 구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 과정을 상형문자로 기록한 『보투리니 고문서』를 보면 테노츠틸란을 건립한 메쉬카가 단일 칼폴리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기존 논문(2010, 561-562)에서 연구했듯이 이주 과정에서 새로운 칼폴리가 합세하거나 기존 칼폴리가 대열에서 이탈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메쉬카 왕족의 후손이었던 테소소묵(Tezozómoc)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메쉬카가 단일 칼폴리가 아니라 다수의 칼폴리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테노츠틸란의 정치·사회 구조와 관련된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멕시코(López Austin, Castillo 등)뿐만 아니라 미국의 학계(Carrasco, Calnek, Katz 등)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러 주제와 관련해 서로 이견을 보이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한 중심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테노츠틸란뿐만 아니라 정복 지역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 시기’가 통시적인 특징이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가 제한적이어서 시기별로 분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로 소급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의 정치·사회 변화는 기존 연구자들이 남긴 연구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테소소목에 따르면, 테노츠티틀란을 사방위에 맞추어 4개 지역(campan)으로 분할할 당시에 칼폴리의 수가 총 14개였다.⁶⁾ 이 문제와 관련해 마토스(Matós)의 경우는 코아테펙(Coatepec) 사건을 이질적인 칼폴리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며 이주 집단의 다양성을 지적했다(1999, 136). 이외의 다른 연구자들을 인용하기에 앞서 여러 사료에서 이를 확인할 만한 단서들을 더 찾을 수 있다. 먼저, 테노츠티틀란(당시에는 Toltzalan Acatzalan이라 불렀고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에 정착한 이후 이주 집단을 4개의 캄판(Moyotlan, Teopan, Atzacolco, Cuepopan)⁷⁾으로 배치할 당시에 두란의 기록을 보면 친족(parientes)뿐만 아니라 동료(amigos)나 우호 관계(allegados)에 따라 분리되었다. 그리고 각 캄판은 숭배하는 신에 따라 다시 작은 단위(barrio)로 나뉘었다(1995, 93-94).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이주 집단이 동일 조상과 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일 칼폴리가 아니라 여러 이질적인 칼폴리로 구성된 연합체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 분할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일부 집단이 이탈하여 섬의 북쪽 지역에 틀라텔롤코(Tlatelolco)를 세운 것도 메쉬카라 불렀던 집단이 여러 이질적인 칼폴리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메쉬카가 단일 칼폴리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확증은 사아군(Sahagún)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메쉬카의 신은 우이칠로포츠틀리(Huitzilopochtli)라며 틀라카엘렐(Tlacaelel)이 메쉬카를 설득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León-Portilla 1997, 252, 재인용). 로페스 아우스틴과 로페스 루한에 따르면, 많은 대가족을 하나의 칼폴리로 결속시키는 것은 동일 칼폴테오틀(calpultéotl, 칼폴리의 고유 신)이며, 칼폴테오틀은 칼폴리의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1996, 1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이칠로포츠틀리가 당시까지도 메쉬카의 칼폴테오틀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메쉬카라 불렀던 집단이 단일 칼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아테펙 사건 이후에 우이칠로포츠틀리를 숭배했던

6) 테소소목이 언급한 14개의 칼폴리는 다음과 같다: Tlacoachcalco, Cihuateopan, Tlacateopan, Yopico, Tezcacoac, Tlamatzinco, Mollocoititlan, Chalmeçá, Tzomolco, Coatlan, Chillico, Izquitlá, Milnahuac, Coatl Xoxouhcan(1992, 74).

7) 테노츠티틀란이 건립된 섬은 일그러진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면적은 약 12km² 정도였다, 대략 남쪽 점(Av. Chapultepec과 Av. Cuautemoc이 만나는 점)과 북쪽 점(Av. Insurgentes와 Calzada Nonoalco가 만나는 점)을 이으면 테노츠티틀란의 서쪽 면과 거의 일치한다(Carballal Staedtler and Flores Hernández 2004, 33). 테노츠티틀란은 4개의 캄판으로 분할되었고, 각 캄판은 여러 개의 칼폴리로 구성되었다.

칼폴리가 정치적인 패권을 확보했지만 다른 신을 섬겼던 칼폴리들도 집단 내에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사료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토대로 테노츠틸란을 건립한 메쉬카가 단일 칼폴리가 아니었으며, 조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다른 이질적인 칼폴리들의 연합집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테노츠틸란에 정착(1325년)한 이후에도 각 칼폴리는 상대적으로 혈연 개념의 친족 단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급자족 형태의 사회·경제 단위였을 가능성이 높다. 섬과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농업이나 어업, 그리고 채집을 통해 삶을 영위했고, 무역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부의 축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쉬카가 정착해 있었던 테노츠틸란이 테파네카틀랄리(tepanecatllali, 테파네카 소유의 땅)여서 아스카포살코에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그리고 아카마피츠틀리가 1대 왕으로 추대되기 이전까지는 왕이 부재한 집단지도체제였기 때문에 행정 단위로서의 의미는 매우 희박했고, 정치적인 독립성과 군사적인 특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아카마피츠틀리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칼폴리보다 상위 개념의 중앙조직이 등장했지만 칼폴리의 장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우위가 유지되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분석했듯이, 중앙조직과 더불어 4개의 캄판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적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지만 왕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칼폴리 장들의 군사적인 특성이 상당부분 유지되었고, 각 칼폴리의 정치적인 독립 성향도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칼폴리 내의 계급 분화도 미약해서 귀족과 평민 사이의 차별성은 크지 않았다.

정치체제의 성격

메쉬카가 여러 칼폴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멕시코 분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결속력을 보여주며 하나의 연합집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주 과정에서의 동일하게 여러 칼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며 도시국가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사실은 『틀라텔물코 연대기』나 두란의 기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도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두란의 기록에서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아카마피츠틀리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이주시절의 지도자 6명(Acaçitli, Tenoch, Meçi, Ahuexotl, Oçelopan, Teçacatetl)

과 4명의 신관(Cuauhtloquetzqui, Ocoacal, Chachalaitl, Axoloua)이 합의하여 추대했기 때문이다(1995, 98). 이들이 당시의 지배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어떤 칼폴리를 대표하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는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로서는 규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주 시절과 정착 초기의 지도자 여러 명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지도자는 종신 형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칼폴리보다 상위 개념인 중앙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는 여러 칼폴리의 장(長)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대표자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랜 이주과정을 통해 칼폴리 간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칼폴리 간의 서열이나 권력 관계 또한 크게 차별화될 여지는 적었다.

일부 연구자들이 테노츠티틀란 정착 초기에 칼폴리 내의 체제가 민주적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Vaillant 1992, 96). 스페인 정복 초기에 비해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만 이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 당시의 정치형태가 칼폴리 간의 우열이 적은 집단지도체제였지만 테노츠(Tenoch)와 쿠아우틀로케츠키(Cuauhtloquetzqui, 혹은 Cuauhcoat이라고도 불림) 가문의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⁸⁾ 『아스카티틀란 고문서』를 보면 아카마피츠티틀리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테노츠의 아들(Epcoat)이 한 캄판의 장을 맡고 있었고(1949, 98), 2대 왕인 우이실리우이트(Huizilihuit)은 쿠아우틀로케츠키의 딸에게서 태어났다(Durán 1995, 99).

칼폴리보다 상위개념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고 도시국가의 기본 틀이 갖춰지게 된 것은 아카마피츠티틀리가 집단지도체제의 합의에 따라 1대 왕으로 추대되면서부터이다. 『아스카티틀란 고문서』를 보면, 아카마피츠티틀리 왕을 중심으로 아카시틀리(Acacihuitl)가 시우아코아틀(cihuacóatl) 직위를 맡았고, 4명(Epcoat, Xomimitl, Xiuhcaque, Calpilcatl)이 4개 캄판의 장을 맡고 있다(1949, 98). 1대 왕이 즉위했던 때(1382년)부터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이원체제(tlatoani와 cihuacóatl)를 갖추었고, 4개의 캄판을 통해 행정체제까지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조직의 구조는 확인할 수 없다. 아카마피츠티틀리

8) 티사판(Tizapán)에서 지도자로 선출(1299년)된 테노츠는 테노츠티틀란이라는 도시 이름이 테노츠와 연계되어 있을 정도로 정착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메쉬카가 차풀테펙에 정착해 있었을 당시에 지도자였고, 우이칠로포츠티틀리의 신관이었던 쿠아우틀로케츠키(Garibay 1973, 49)의 경우도 당시 이주 집단 내에서 정치·종교적인 영향력이 강력했다.

둘러싸고 있는 5명(이름이 확인된 3명: Acacihltli, Tecpan, Iexitlet)중 아카시틀리를 제외한 4명과 주변의 6명(이름을 확인할 수 없음)이 관료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다른 사료들에서도 당시의 정치구조와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아카마피츠틀리 왕의 등장은 당시 정치권력에 변화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카마피츠틀리의 부친(Opochtzin)이 이주 집단 출신인 반면에 모친은 쿨우아칸(Culhuacán)의 왕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주 집단 출신의 칼폴리와 외부 칼폴리 간의 정치적인 연합을 가정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유일하게 연구한 벤(Van)에 따르면, 아카마피츠틀리의 부친이 속한 칼폴리가 찰만(chalman)이었고, 찰만은 이주 집단과 테노츠티틀란의 토착민(chalmeca o chinampaneca)이 연합한 칼폴리였다(1982, 23, 25). 그러나 토르케마다(Torquemada)의 기록에 아스틀란에서 출발한 칼폴리 중에 찰메카(chalmeca)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1975-1979, 113) 벤의 주장은 조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테노츠티틀란의 권력이 테노츠 가문이 이끌던 치치메카-메쉬틴(chichimeca-mexitin) 칼폴리에서 쿨우아-메쉬카(culhua-mexica) 출신의 칠라틀레쇼신-아카마피츠틀리 가문이 이끄는 칼폴리로 이전되었다고 벤이 주장한 것(1982, 25)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1대 왕이 이주 집단 내에서 나오지 않았고, 쿨우아칸 출신의 귀족들이 이즈코아틀 왕 초기까지도 테노츠티틀란의 중앙세력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의 주장대로 권력이 새로운 혼합 칼폴리로 이전되었다고 해도 이전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아스카티틀란 고문서』를 보면 아카마피츠틀리가 왕으로 즉위했던 시기에 이주 집단 출신의 아카시틀리(Acacihltli)가 시우아코아틀의 직위를 차지했고, 테노츠의 아들(Epcoatl)을 포함해 4명의 캄판 지도자가 모두 이주 집단 출신이었기 때문이다(1949, 98). 이러한 사실은 왕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 내에 이주 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건재했으며 아카마피츠틀리 왕의 내부지지 기반이 취약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정은 두란의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주시절의 지도자들과 신관들이 의견을 조율하여 아카마피츠틀리를 왕으로 추대했을 당시에 왕의 나이가 20살에 불과했다(1995, 103). 그리고 아카마피츠틀리의 자식들이 첫 번째 왕비였던 쿨우아칸의 공주 일란쿠에이틀(Ilancucitl)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주 집단 출신의 각 칼폴리 장의

딸에게서 나왔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일란쿠에이틀이 아이를 낳지 못해 아카마피츠틀리가 각 칼폴리 장의 딸들과 다시 결혼을 했어야만했기 때문이다(1995, 99). 게다가 아카마피츠틀리는 생전에 직접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했고, 사후 4개월 동안 2대 왕을 선출하지 못했었다는 기록도 발견된다(Durán 1995, 99).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왕권이 취약했고, 각 칼폴리의 장과 신관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1대 왕이 등장했지만 이주 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되지 않았고 왕 중심의 강력한 정치체제로 변환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아카마피츠틀리 왕은 여러 칼폴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2대 왕, 우이실리우이틀(Huitzilihuitl)에게서도 재확인 할 수 있다. 먼저 2대 왕 또한 4칼판의 주요 인물들이 합의하여 왕으로 선출(1404년)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06). 우이실리우이틀 왕조차도 도시국가의 법률을 공포하고 정치·사회체제의 기틀을 다졌지만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생전에 왕위계승자를 지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결혼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두란에 따르면, 집단지도체제의 결정에 따라 우이실리우이틀 왕은 테소소목의 딸(Ayauhçiuatl)과 정략결혼을 했고 왕비를 이용하여 아스카포살코에 바치는 공물을 대폭적으로 경감시켰다(1995, 109-110).⁹⁾

왕권에 대한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치말포포카 왕 시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두란의 기록에서 우이실리우이틀의 아들 치말포포카를 왕으로 선출했을 당시에 나이가 10세(혹은 11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1995, 112). 치말포포카의 모친(테소소목의 딸)이 일찍 사망했고 이를 측은히 여긴 테소소목 왕이 외손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자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했었던 집단지도체제의 결정이었다. 치말포포카 또한 집단지도체제의 결정에 따라 행동했었던 흔적을 두란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테소소목 왕에게 차콜테펙의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사건이다(1995, 113). 당시까지도 테노츠티틀란은 고질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었다. 더 나아가

9) 집단지도체제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두란의 기록에서 아야우시우아틀이 치말포포카(Chimalpopoca)를 낳았을 당시에 아스카포살코, 타쿠바, 코요아칸의 왕들이 테노츠티틀란을 방문하여 축하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1995, 109). 이 기록을 통해 우이실리우이틀 왕 시기에 테노츠티틀란이 아스카포살코 주축의 테파네카 연합체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차풀테펙에서 테노츠티틀란에 이르는 수로시설을 대신 건축해 달라는 무리한 청탁을 하기도 했다(Durán 1995, 114-115).¹⁰⁾

앞에서 언급한 두란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테노츠티틀란의 초기 왕(1-3대) 모두 집단지도체제의 합의에 따라 왕으로 선출되었고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의 결혼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까지도 집단지도체제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했다. 그 원인을 에드헤임(Erdheim)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았다(1980, 210).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세력이 칼풀리들의 경제적인 토대에 얽혀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실, 테노츠티틀란은 호수 내에 위치한 늪지대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새와 물고기를 잡거나 호수가의 산물을 채취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치남파스(chinampas)를 이용한 농업도 초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치말포포카 왕 때까지도 고질적인 식수난에 허덕였다. 게다가 『라미레스 고문서』에 따르면, 아카마피츠틀리를 왕으로 추대했을 당시에 불안함을 느낀 아스카포살코의 테소소목 왕이 공물을 2배로 올려 메쉬카는 과중한 공물에 허덕여야 했다(1979, 45). 물론 3대 왕까지도 테노츠티틀란은 아스카포살코의 정치적인 연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개혁

틀락쉬틀란의 설립

아스카포살코를 멸망시키고 테파네카 도시들을 정복한 이츠코아틀(Itzcoatl, 재위기간 1427-1440) 왕은 멕시코 분지 내의 정치 판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테스코코(Texcoco)와 틀라코판(Tlacopan)을 끌어들이 삼각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테노츠티틀란이 분지 내 패권을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정치개혁이 단행되었다. 왕위계승과 선출방식을 과감하게 개혁한 틀락쉬틀란(tlacxitlan)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두란의 기록을 보면, 틀락쉬틀란은 4명(tlacochealcatl,

10) 수로를 대신 건설해 달라는 무리한 청탁은 아스카포살코의 왕족뿐만 아니라 테파네카 연합체 왕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심에 테소소목의 아들이며, 코요아칸(Coyoacán)의 왕으로 있었던 막스틀라(Maxtla)가 있었다. 이후에 치말포포카 왕은 막스틀라 왕에 의해 살해되었다.

Tlacatecal, Ezuauacatl, dillancalqui)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위원은 왕의 형제를 비롯한 왕실 혈통에서만 선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위원에게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만 주어졌고, 그 직위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1995, 152-153).

틀락쉬틀란의 내부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의 흔적이 발견된다. 왕위 계승이 아카마피츠틀리의 혈통으로 제한되었고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이 틀락쉬틀란의 위원 중에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수가 급증한 왕족들 간의 위계질서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틀락쉬틀란 위원의 자격이 세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왕족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틀락쉬틀란 설립 당시의 규정이 이후에 원칙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목테수마를 왕으로 선출할 당시에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했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75).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아사야카틀(Axayácatl) 왕의 경우는 왕족과 귀족이 참여했고(1995, 304), 『라미레스 고문서』는 틀락쉬틀란이 선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979, 86). 틀락쉬틀란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왕의 선출과 관련해 절대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틀락쉬틀란 위원의 직위가 자식에게 계승될 수 없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예가 있다. 틀라카엘렐이 말고 있었던 시우아코아틀 직위가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 시기에 아들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다(Durán 1995, 427). 이처럼 틀락쉬틀란 설립 당시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특히 틀락쉬틀란 위원 중에서 왕을 선출한다는 규정은 한 번도 위반된 경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틀락쉬틀란의 설립으로 왕 중심의 지배체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칼폴리의 장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었고 각 칼폴리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영향력도 급격히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로드리게스(Rodríguez)는 틀락쉬틀란의 설립과 더불어 칼폴리의 장들이 권력의 핵심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1995, 281).

또 다른 변화는, 틀라토아니와 시우아코아틀로 구성된 전통적인 이원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우아코아틀이 왕과 틀락쉬틀란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맡았고, 이전 시기에 비해 정치적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코아틀과 목테수마, 그리고 아샤야카틀 왕 시기에 걸쳐 시우아코아틀을 역임했던 틀라카엘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우아코아틀은 왕에게 국정 운영 전반을 조언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고 왕이 사망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왕의 선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¹¹⁾

또한, 틀락쉬틀란의 설립은 중앙조직과 각 칼폴리 간의 관계를 급속히 변화시킨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카라스코에 따르면, 틀락쉬틀란이 각 칼폴리 내에 설치된 텍칼리(teccalli, 필자 주: teccalco라고도 불림)의 사법판결을 승인하는 상급기관이었기 때문이다(1996b, 181). 이는 급속히 강화되고 있었던 중앙정부의 하부 조직을 사법적으로 장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로써 틀락쉬틀란은 테노츠티틀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까지도 사법적으로 장악했다.¹²⁾ 이러한 변화는 이즈코아틀 왕 시기에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세력의 힘이 급격히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반면에 칼폴리의 장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급속히 축소되었다.

칼폴리 장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급속히 약화시킨 틀락쉬틀란의 설립이 가능했던 원인은 테파네카 연합체와 전쟁을 할 당시의 주체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왕족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세력이 칼폴리의 장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11) 틀라카엘렐이 시우아코아틀로 재임했던 시기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기능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틀라카엘렐의 아들이 시우아코아틀의 직위를 계승한 이후에는 목테수마 쇼코요신의 왕권에 종속되었다. 이는 틀락쉬틀란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질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쉬카의 정치조직이나 특성 등을 연구할 때에는 특정 시기나 사료에 편중되는 것을 배제하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2) 로페스 아우스틴은 왕과 시우아코아틀 밑에 6개의 직능별 위원회(justicia, hacienda, administración, ejército, clero estatal y calmecac, comercio)가 테노츠티틀란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1974, 515-550). 테노츠티틀란의 정치체제와 직접 관련된 사료가 적기 때문에 삼각동맹국이었던 테스코코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들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다. 물론, 두란의 기록에서도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1995, 266). 이러한 분류는 현재 일반화된 사실로 메소아메리카 학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현대 정치체제의 시각에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각 위원회의 장이 '장관'에 해당하고 모든 위원회의 장이 동일 서열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대의 국무회의처럼 왕을 중심으로 6개 직능위원회의 장이 모여 국정을 운영했었을 것으로도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핵심은 틀락쉬틀란이었고, 각 직능위원회는 사안에 따른 위원회였다.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상위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결과적으로 각 칼폴리의 장들은 이전의 정치·군사적인 독립성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행정 관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텍칼리의 강화

이츠코아틀 왕 시기에 발견되는 다른 중요한 변화는 각 칼폴리의 사법과 재정, 그리고 군사 분야를 장악하기 시작한 텍칼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텍칼리의 존재가 사료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츠코아틀 왕 때부터이지만 아카마피츠틀리 왕 시기부터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각 칼폴리 장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칼폴리의 독립 성향도 강했기 때문에 설령 존재했더라도 그 기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사아군의 기록을 보면 목테수마 왕 시기를 기점으로 텍칼리의 기능이 급속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1985, 466). 그러나 텍칼리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완비된 것은 이츠코아틀 왕 때였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코요아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틀라카엘렐을 틀락쉬틀란 위원으로 임명하고 왕족 20명을 중앙정부 조직의 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1995, 148). 임명된 왕족은 모두 이츠코아틀 왕의 형제와 조카들이었다.

당시 상황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체는 아카마피츠틀리 혈통의 왕족과 왕족 휘하의 일부 칼폴리(“los mas principales deudos suyos”, 필자 주: 원문)였다(1995, 127). 발굴된 사료의 부족으로 어떤 칼폴리가 전쟁 승리 이후에 부각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단지도체제에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왕족들이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은 사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란의 기록을 통해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전공자의 명단을 보면 이츠코아틀 왕의 형제 5명(Cuatlecoatl, Tlacauepan, Tlatolçaca, Epcualt, Tzonpantli)과 조카 8명(모두 2대 왕인 우이실리우이틀의 후손이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Tlacaclael, Veuemoteucçuma, Huchucçaca, Citlalcoatl, Aztacoatl, Axicoyotzin, Cuauhtizimitl, Xiconoc)이었다(1995, 129). 이들을 20개 조직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던 이츠코아틀의 형제 5명 중 4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이실리우이틀 왕의 아들(이츠코아틀 왕의 조카) 8명 중에서는 7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7명 중에는 3대에 걸쳐 시우아코아

들을 역임했던 틀라카엘렐과 5대 왕이 되었던 목테수마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이실리우이틀 왕이 메쉬카의 정착 초기에 우이칠로포츠틀리의 신관이었던 쿠아우틀로케츠키의 딸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츠코아틀 왕 시기에 중앙조직의 핵심으로 등용된 사람들이 쿠아우틀로케츠키의 외손자들이었다. 게다가 두란의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츠코아틀 왕이 왕족 20명을 중앙조직의 장으로 임명할 당시에 임명에서 제외된 쿨우아칸 출신의 귀족 3명이 반발했다는 내용이다(1995, 149). 이는 이주 집단 출신의 칼폴리 지도자 후손들이 중앙조직을 장악했고 아카마피츠틀리 왕 시기에 중앙조직으로 진입했던 쿨우아칸 출신의 귀족들이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메쉬코-테노츠틸틀란의 건국신화와 우이칠로포츠틀리 탄생신화가 메쉬카의 역사와 종교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남을 수 있었다.

이주 집단 출신의 후손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재등장하며 중앙조직을 안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전쟁 주체 세력인 탓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뀐 경제적인 상황도 큰 몫을 차지했다. 테파네카 도시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테노츠틸틀란이 테파네카틀랄리(*tepanecatllali*)에서 메쉬카틀랄리(*mexicatllali*, 메쉬카 소유의 땅)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스카포살코에 공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쿨우아(*culhua*) 지역뿐만 아니라 테파네카와 아콜우아(*acolhua*) 지역의 도시국가들로부터도 테노츠틸틀란이 공물을 받는 야오틸랄리가 처음 생겨났다.¹³⁾ 이 시기는 테노츠틸틀란의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격동기였다.

게다가 전쟁 승리의 실질 주역이었던 이츠코아틀 왕은 야오틸랄리에 대한 독점권을 쥐고 있었다. 두란의 기록을 보면, 이츠코아틀 왕은 아스카포살코와 소치밀코를 정복한 이후에 자신과 틀라카엘렐, 그리고 전공을 세운 귀족들에게 차등을 두어 야오틸랄리를 배분했다(1995, 130, 151, 165). 각 칼폴리의 경제적인 토대에 상당부분 의존했었던 왕족들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되면서 칼폴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¹⁴⁾ 특히 왕의 경우는

13) 야오틸랄리(*yaotllali*)는 정복지를 총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복지 중에서 공물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14) 테노츠틸틀란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했는가와 관련해 많은 연구자들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이 논쟁의 시작은 벤렐리가 메쉬카 사회에 개인 소유의 땅이 부재했었다는 주장을 발표한 18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에 벤렐리의

텍판틀랄리(tecpantlalli, 왕궁에 속한 땅)와 틀라토카틀랄리(tlatocatlalli o tlatocamilli, 왕 소유의 땅)를 바탕으로 중앙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칼폴리의 정치조직을 능가하게 되었다. 특히 목테수마 왕의 정복이 원거리까지 진행되면서 야오틀랄리뿐만 아니라 각종 전리품을 토대로 왕과 중앙세력의 힘은 한층 더 강화되어 중앙권력집단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또한 포츠테카(pochteca, 필자 주: 무역상)의 성장은 왕과 귀족계층의 부 축적에 큰 기여를 했다. 카츠(Katz)에 따르면, 포츠테카들이 자신들의 물품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기도 했지만 왕이나 귀족의 물품을 받아 대규모로 무역거래를 했기 때문이다(1994, 99).

당시 상황과 관련해 로페스 아우스틴은 토지 분배가 칼폴리 간의 계급 차이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1996, 196). 그러나 칼폴리 간의 계급분화를 사료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왕을 중심으로 중앙조직을 차지한 왕족들이 야오틀랄리의 독점을 통해 각 칼폴리에 대한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세력과 귀족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칼메카(calmecac)에 의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공고화되었다. 왕족과 귀족의 자식들을 유능한 인재로 교육하여 전사와 관료뿐만 아니라 사제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칼메카 또한,

주장에 반대하는 여러 연구자들(Caso, Kirchhoff, Moreno, Katz 등)이 차례로 등장했고, 벤델러를 지지하는 연구자들(Castillo, Austin 등)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문제는 필랄리(pillalli, 귀족의 땅)와 칼풀랄리(calpullalli)의 소유 개념이었다. 특히 귀족의 경우는 필랄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었지만 평민에게는 팔 수 없었고, 필랄리를 세습할 후손이 없는 경우에 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토르케마다의 기록(1943, 546)이 문제가 되었다. 칼풀랄리의 경우는 각 가족에게 배분된 칼풀랄리가 자식에게 세습되었지만, 후손이 없거나 3년째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칼풀리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예로 들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땅의 소유가 근원적으로 왕과 칼풀리였다고 주장한다. 개인 소유의 토지 개념을 긍정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부정하기 시작한 아우스틴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아우스틴은 기존 연구자들과는 다르게 직접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통해 접근했다. 아우스틴에 따르면, 귀족에게 배분된 야오틀랄리를 마예케(mayecque)가 경작했지만 왕에게 바쳐야 할 공물을 대신 귀족에게 바치는 형태였고, 마예케의 자식들이 계속 세습했다. 게다가 마예케는 테노츠티틀란이 일으키는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서양이나 동양과는 달리 귀족과 마예케의 관계가 완전한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996, 205). 사실, 마예케가 야오틀랄리를 경작하는 기간을 귀족이 개인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를 경작하는 가족을 다른 가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복지이기에 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랄리와 칼풀랄리가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세습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메슈카의 토지 소유 개념을 동양이나 서양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연구에서는 편의상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왕으로부터 테오판틀랄리(teopantlalli, 신전 토지)를 배분받았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종속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칼메카은 2명의 사제(Quetzalcóatl-Tótec tlamacazqui: 우이칠로포츠틀리를 섬기는 사제, Quetzalcóatl-Tláloc tlamacazqui: 틀랄록을 섬기는 사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플로렌티노 고문서』에 따르면 스페인 정복 초기에 칼메카의 수가 총 7개에 이르렀다(Carrasco 1996b, 184 재인용).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는 몇 개가 존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왕족과 귀족의 자식들을 교육해 중앙조직에 인재를 제공해 주며 지배계층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

사회 개혁

텔포츠칼리(telpochcalli)와 칼폴리의 변화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칼폴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텍칼리의 기능이 각 칼폴리 내에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츠코아틀 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텍칼리의 장(tecutli)을 임명했고, 테쿠틀리 밑의 하급 관리로 전공자들을 테테쿠티(tetecuhitín)으로 임명했다. 카츠에 따르면, 이츠코아틀 왕 시기부터 테쿠틀리가 각 칼폴리에서 중앙세력에 공물을 바치는 토지(Tlatocatlali o Tlatocamili)를 관리하고 중앙세력과 칼폴리를 이어주는 행정적인 중개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1994, 180). 다시 말해, 칼폴리 내에 칼폴리 전통 조직과 텍칼리 조직이 공존했다. 중앙세력은 텍칼리를 통해 각 칼폴리의 행정과 재정 등을 통제했고 틀락쉬틀란을 통해 텍칼리를 사법적으로 장악했다. 반면에, 각 칼폴리는 정치와 사법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에서도 고유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 근원적인 원인을 칼폴리 내 군사집단인 텔포츠칼리(telpochcalli)의 특성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칼폴리마다 있었던 텔포츠칼리는 이전까지 칼폴리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시켜주었던 무력집단이었다. 그런데 테파네카 도시국가와의 전쟁 승리 이후에 전공자에 대한 예우와 토지 분배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가 발생했다.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한 평민 출신의 군인들이 귀족 칭호를 받았고 야오텔랄리

까지도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분상승과 더불어 중앙조직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편입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왕으로부터 야오텔랄리를 배분받으면서 칼폴리에 근간한 경제적인 토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민 출신의 전쟁 공훈자들이 신분 상승을 하며 중앙 관료로 편입된 기록은 여러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포마르(Pomar)에 따르면, 평민 출신의 군인이 4명의 적을 죽이거나 생포하면 테키우아(tequihua)라는 직위를 받았다. 이 직위를 받으면 카피탄(capitán)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정부 관리도 될 수 있었다(1939-1942, 38).¹⁵⁾ 사아군의 기록에서는 테키우아 출신의 카피탄이 테노츠티틀란에 있었던 테키우아카칼리(tequihuacalli, casa de capitanes)에 참석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1985, 466-467). 테키우아 출신의 전공자들은 왕궁에서 생활을 하며 귀족들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했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칼폴리 소속의 평민 출신 전공자들이 야오텔랄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관리로 유입되면서 이들은 점점 중앙세력에 종속되었다.

사아군의 기록을 보면, 평민 출신의 전공자들이 테키우아 외에도 아츄카카우틴(achcacauhtin)으로 임명되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대외사절로도 일을 했다(1985, 466). 그리고 이들이 목테수마 왕 시기에 중앙조직으로부터 봉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란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1995, 279). 이처럼 평민 출신의 전공자들이 왕궁에서 근무하거나 중앙정부의 관리가 되면서 자신이 속한 칼폴리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종속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칼폴리 내의 텔포츠칼리가 칼폴리의 독자적인 군사조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군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부조직으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칼폴리의 조직과 위상을 급격히 약화시켰고 칼폴리 장의 권위는 빠르게 추락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할 때에 각 텔포츠칼리는 자신이 속한 칼폴리의 기를 들고 나갔고, 같은 전투 단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총 지휘권은 중앙정부에 있었다. 이전에 텔포츠칼리는 칼폴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집단이었다. 그러나 평민 출신의 전공자들이 독수리나 재규어 용사로 임명되며 신분이 상승했고, 야오텔랄리를

15) 테키우아로 임명되면 직위에 맞는 깃털 장식의 의복을 받았고, 축제에서 다른 테키우아와 동석하거나 춤을 함께 출 수 있었다.

통해 칼풀리를 벗어나 중앙정부로 흡수되면서 칼풀리 장의 텔포츠크칼리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텔포츠크칼리가 칼풀리의 속성을 벗어나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흔적은 쿠이카칼리(cuicacalli)와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로 종교행사와 관련이 있었던 쿠이카칼리가 각 텔포츠크칼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아군의 기록을 보면, 각 텔포츠크칼리의 군인들은 순번에 따라 왕궁에 있는 쿠이카칼리에 가서 춤을 추어야만 했다. 서열에 따라 의복의 색과 장식물이 달랐고 춤을 추는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 또한, 술을 대중 앞에서 마실 수 있었으며 인육을 섭취할 수 있었고, 일부 전공자들은 귀족들과도 함께 춤을 출 수 있었다(1985, 466-467). 매일 밤 치러졌던 이 행사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각 칼풀리 내의 군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고 과시할 수 있는 무대였다. 또한, 테노츠티틀란의 종교 이데올로기를 각인시키고 각 칼풀리 군인들의 결속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행사였다. 우이칠로포츠티틀리를 중심으로 한, “제5태양 신화”와 “꽃의 전쟁”이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처럼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칼풀리의 군사적인 독립성이 상당부분 와해되었고, 중앙정부에 종교·군사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했다.

스페인 정복 초기의 칼풀리 조직을 연구한 로페스 아우스틴은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칼풀리의 장은 테아츠크(teachcah, 필자 주: 소리타의 경우는 calpullec)이고, 하부구조로 원로위원회가 있었으며 원로위원회 밑으로는 3개의 하부조직(tequitlatoque, vigilantes, sacerdotes del calpulli y maestros del telpochcalli)이 있었다(1974, 515-550). 로페스 아우스틴의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값진 결과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함정도 도사려 있다. 칼풀리 자체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원로위원회의 3개 하부조직이 모두 중앙조직의 행정, 군사, 종교위원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로위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사실상 조연과 고문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로페스 아우스틴의 연구 결과는 테노츠티틀란을 벗어난 삼각동맹 예측도시나 주변부 도시의 칼풀리를 설명할 때에는 적당할 수 있겠지만 테노츠티틀란의 경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 정복 초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소리타의 기록을 보면, 칼풀리의

장은 칼폴리의 땅과 경계를 기록하고, 사용 가능한 땅을 구성원에게 분배했다. 그리고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1941, 142). 무엇보다도 칼폴리의 장을 부양하는 전용 토지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칼폴리의 장은 칼폴리 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등의 일만 전담하는 관료화된 특권층이었다. 이는 칼폴리의 장이 정착 초기의 군사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행정 관리 형태로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칼폴리 또한, 전통적인 종교·군사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행정 단위의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앙조직에서 파견된 테쿠틀리가 칼폴리 장의 전통적인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했기 때문이다. 각종 사료에서 이츠코아틀 왕 시기부터 칼폴리의 장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츠코아틀 왕 시기부터 전통적인 칼폴리의 구조와 특성이 상당부분 해체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던 것을 시사한다.¹⁶⁾

전문 직종 칼폴리의 탄생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중앙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정복지의 공물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회 변화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의 전문 직종 별 칼폴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귀족계층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 공예인과 상인, 그리고 포츠테카(pochteca, 무역상인) 등이 전문 직종 군으로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익스틀릴소치틀(IXtlilxóchitl)에 따르면 당시에 30개 이상의 전문 직종이 있었다(1965, 326). 그 종류를 언급하지 않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고문서와 연대기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문가는 대략 다음과 같다: amanteca(깃털 전문가), orfebres, joyeros, lapidarios, escultores, sastres, pintores, escribanos, alfareros, albañiles, talladores de madera, fabricantes de cuchillos, curtidores, ceramista. 하비에르 곤살레스(Javier González)의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정복 초기에 테노츠티틀란에는 60개가량의 칼폴리가 존재했다(1993, 155). 테노츠

16) 칼폴리의 개념과 관련해 메소아메리카 연구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칼폴리를 혈연적인 특성으로 보는 연구자(Víctor M., Castillo F., Alfredo López Austin 등)와 지역과 행정단위(Pedro Carrasco 등)로 보는 연구자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메쉬카의 칼폴리 개념이 테노츠티틀란에 정착한 이래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변화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삼각동맹의 예측도시와 주변부 도시국가와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큰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티틀란 정착 초기에 칼폴리의 수가 14개에 불과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직종 별 칼폴리의 수가 어느 수준까지 증가했는지는 사료 상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분화가 진행된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직종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칼폴리를 벗어나 새로운 칼폴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부족하나마 두란과 테소소목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조각가가 목테수마 왕의 형상을 바위에 조각하자 왕은 그 대가로 농산물(옥수수, 프리홀, 고추, 카카오)과 의복(manta, camisa)이외에 노예 1명을 상으로 내렸다(1867-1880, 514). 이와 유사한 예는 테소소목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문 공예가들에게 2명의 노예(tlacohtli 혹은 tlatlacoliztli)를 상으로 내렸고, 노예가 하는 일은 땀감을 마련하고, 농사를 지어 옥수수를 바치는 것이었다(1838-1853, 668).¹⁷⁾ 이러한 기록들은 전문 직종 사람들이 칼폴리의 경제적인 토대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전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속한 칼폴리를 벗어나 전문 직종 사람들이 새로운 칼폴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줄 만한 사료는 현재 발견할 수 없지만 국가 시책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 직종 칼폴리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귀족의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혈연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칼폴리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하부 조직적 성격이 강했다. 흥미로운 것은 네사우알코요틀이 각지에서 뛰어난 전문가를 데려왔다는 기록이다(Katz 1994, 79, 재인용). 이러한 사실은 전문 직종의 칼폴리가 테노츠티틀란 칼폴리 출신의 사람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과도 전문 기능을 바탕으로 결합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형성된 칼폴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포츠테카로 구성된 칼폴리이다. 테노츠티틀란에서 포츠테카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우이실리우이틀 왕 시기에 테소소목 왕이 무역거래를 허가하

17) 스페인 연대기 학자들이 노예로 지칭한 사람들은 보통 절도, 빚, 살인, 노름 등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노예로 팔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빚을 갚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풀려났다. 노예들이 주로 담당할 노역은 청소, 직물 제조, 땀감 마련, 농업 활동, 짐 운반 등이었다. 동양이나 서양의 노예와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기도 했고, 노예까지 소유한 특이한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주인에게 복종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가 있었다. 3번 팔린 노예는 포츠테카들이 구입하여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포zte카가 이츠코아틀 왕 이전에 독자적인 칼폴리를 구성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무역 거래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활발했지만 그 규모가 작았고 각 칼폴리의 자급자족적인 특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복지가 확대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무역만 전담하는 포zte카의 수가 늘기 시작했다. 상단의 규모가 커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목테수마 왕 시기로 보인다. 두란의 기록에서 멕시코 분지 내 여러 도시국가(Tenochtlán, Tezcoco, Chalco, Xochimilco, Coyoacán, Tacuba, Azcapotzalco)의 포zte카로 구성된 대규모 상단이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1995, 238). 물론, 이츠코아틀 왕 시기에도 테노츠티틀란의 포zte카가 멕시코 분지 내 도시국가와 무역을 했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포zte카의 무역 활동과 상단조직이 급격히 발달한 계기는 목테수마 왕 시기에 오아하카(Oaxaca)의 시장(Coaixtlahuac)을 정복한 것과 맞물려 있다. 코아익틀라우악 시장이 오아하카 지역의 거점 시장이었고, 멕시코 남부 마야 문명권 지역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멕시코 분지 내 도시국가 간의 협력이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활동에서도 활발했다.

아코스타(Acosta)에 따르면, 포zte카를 중심으로 새로 형성된 칼폴리카 테노츠티틀란과 틀라틸롤코에 7개(Acxotlan, Atlauhco, Amaehtlan, Itzolco, Pochtlan, Tepetitlan, Tzomolco)가 있었다(1945, 25). 스페인 정복 초기의 상황 이어서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로 소급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도 포zte카가 전문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칼폴리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포zte카로 구성된 상단은 중앙정부의 포zte카요틀(pochtecáyotl)의 관리 하에 있었고, 무역 활동이 근원적으로 국가의 공물과 귀족의 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또한, 무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짐꾼(tlameme 혹은 tlamama)이라 불리는 사회계층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쿡(Cook)과 심슨(Simpson)은 영토 확장 시기에 테노츠티틀란의 인구가 2배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무역에 있다고 주장했다(Calnek 1980, 101, 재인용). 시기의 정확성 문제가 있지만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멕시코 분지 내의 도시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테노츠티틀란으로 유입된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직종을 바탕으로 사회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문 직종을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칼폴리의 등장과 더불어 전통 칼폴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그 특성이 상당부분 변질되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새로운 칼폴리는 혈연과 자급자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칼폴리 개념에서 벗어나 직능이나 직종 단위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중앙정부에 종속되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새로운 칼폴리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칼폴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되었고 점차 텍칼리의 정치·행정구조에 흡수되면서 행정이나 조세 단위의 개념으로 변화해 갔다.

칼폴리 내부 구조적으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정복지가 늘어나면서 공물이 증가했고 테노츠티틀란 내의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때문에¹⁸⁾ 특히, 목테수마 왕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졌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에 참여하거나 전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그 대가로 각종 장식품(아래 입술 장식, 귀고리, 허리띠, 방패, 무기, 문장, 망토, 갑옷의 팔 보호대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1995, 222). 지급받은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다른 생필품과 교환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어업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칼폴리의 경제적 토대를 변화시켰다. 동시에, 상거래를 통한 칼폴리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이었던 전통적인 칼폴리의 구조가 개방적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신분 사회의 정착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이 실행한 각종 개혁은 왕권을 강화하고 칼폴리를 약화시켜 상당부분 중앙조직의 하부구조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신분제도가 처음 법령으로 공포되고 정착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이츠코아틀 왕이 공포했다. 클라비헤로의 기록에 따르면, 평민인 경우도 전공을 통해 귀족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법령이었다(Clavijero 1971, 103). 이 법령에 따라 평민 출신의 전공자도 야오틀랄리를 배분받을 수 있었고, 테쿠틀리나 테테쿠티 등의 직위로 임명되어 중앙조직의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멕시코 분지 내 패권을 유지하고 정복지에 필요한 군인과 다양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여지책이었다. 익스틀릴소치틀

18)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장은 보통 5일이나 20일장으로 열렸고, 거래되는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의 기록에 따르면, 이츠코아틀 왕 시기에만도 삼각동맹국과 각 영지(멕시코 분지와 주변)에 속해 있는 예측도시 중에 왕이 있는 도시국가의 수가 총 30개였다(1985b, 88).

평민도 전쟁 공훈을 통해 야오틀랄리를 소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되자 많은 평민들이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다. 평민들 사이의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당시의 테노츠티틀란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목테수마 왕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면서 일부 귀족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두란에 따르면, 전공이 뛰어난, 왕족과 귀족의 서자를 합법적인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1995, 291).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많은 서자들에게 있어서 이 법령은 합법적인 왕족과 귀족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당시에 부족했던 군 지도자를 상당부분 확보하며 정복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어서 목테수마 왕은 테노츠티틀란을 의복과 장식물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형태나 크기 등에서도 차별을 두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전환시켰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각종 행동수칙뿐만 아니라 신발과 망토를 포함한 각종 장식물의 착용 규정을 법률로 제정했기 때문이다(1995, 264-267).¹⁹⁾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의복이나 장식물에 그치지 않고 주택의 규모나 형태에서도 이루어졌다. 익스틀릴소치틀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1985b, 101). 이러한 법령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 간의 서열을 명확히 하고 계급분화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법령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계층은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왕족들이었고, 일부 평민들이었다. 따라서 새로 형성된 왕족과 귀족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각 계층 별 위계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여 테파네키 도시국가들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돈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령은 테노츠티틀란을 신분사회로 정착시키며 평민뿐만 아니라

19)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왕궁에서 신발을 착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목테수마 왕과 틀라카엘렐뿐이었고, 귀족일지라도 신발을 착용하고 왕궁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귀족의 경우는 테노츠티틀란 내에서 신발을 착용할 수 있었지만 평민은 전공자 외에 신발을 착용할 수 없었다. 또한, 망토 길이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 전공자가 아닌 평민 남성은 면으로 제작된 망토를 착용할 수 없었고, 그 길이가 무릎 밑으로 내려갈 수 없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 또한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규제했다.

귀족까지도 전쟁에 몰입시키는 기형적인 변화를 유발시켰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목테수마 왕의 새로운 법령에 의해 가속화되었다.²⁰⁾ 왕족과 귀족의 자식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공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 가혹한 사회적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철저한 신분사회로 전환되면서 전쟁 공훈이 각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로 변했고, 평민뿐만 아니라 귀족도 전쟁에 몰입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발생했다.

당시 칼폴리의 평민들이 전쟁에 몰입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신분 상승에 대한 강한 집착과 신분사회의 가혹한 차별이 지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격히 바뀐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정복지의 도시국가가 공물만을 바친 것이 아니라 각종 노역도 함께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미레스 고문서』에 따르면, 테노츠티틀란의 피라미드를 건축한 사람들은 정복지 사람들이었고(1979, 84), 두란의 기록은 테노츠티틀란에서 소치밀코에 이르는 독(다리)을 축조한 사람들이 소치밀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1995, 163). 더 나아가 테페아카(Tepeacac)을 정복한 이후에 테노츠티틀란이 공물 이외에 10일마다 순차적으로 사람을 보내 왕궁을 관리하고 빨감과 물을 준비하는 노역을 요구했던 기록도 발견된다(Katz 1994, 128, 재인용). 이러한 예들은 테노츠티틀란이 정복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각종 건축과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왕궁 관리와 같은 각종 노역까지도 대행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테노츠티틀란의 평민들은 이전의 다양한 노역으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었고, 전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테노츠티틀란의 절대 가치가 전쟁 참여와 전공으로 편중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전쟁에 몰입하는 독특한 사회체제로 변화했다. 전사가 되어 전공을 세우는 것만이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에서 계급과 사회분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테노츠티틀란은 병영도시국가로 재탄생했다.²¹⁾

20)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각종 장식품(아래 입술 장식, 귀걸이, 허리띠, 방패, 무기, 문장, 망토, 갑옷의 팔받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면으로 만든 옷을 착용할 수 없으며 깃털로 장식을 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꽃과 향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를 마실 수 없으며 양질의 음식도 먹을 수 없다. 왕의 아들일지라도 낮은 계층의 사람처럼 취급받고 허드렛일을 해야 한다(1995, 290-291).

21) 도시 전체가 병영화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발견된다. 두란의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에 있었던 정치·사회 개혁과 이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와 전통 칼폴리의 변모 과정을 사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츠코아틀 왕 이전 시기에 나타난 칼폴리의 특성과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명했다. 테노츠티틀란을 건립한 메쉬카는 단일 칼폴리가 아니라 혈연과 조상신이 다른 이질적인 칼폴리로 이루어진 연합체였다. 그리고 각 칼폴리는 혈연 개념의 친족 단위를 유지하며 자급자족 형태의 사회·경제 단위를 구성했다. 1대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정치체제는 왕이 부재한 집단지도체제였다. 그러나 쿨우아칸과 모계를 통해 연계된 아카마피츠틀리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칼폴리보다 상위 개념의 중앙조직이 처음 생겼고 도시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 틀라토아니와 시우아코아틀 중심의 이원체제가 정립되고, 4개 감관을 중심으로 정치·행정 조직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이주 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력해서 초기 왕(1-3대)들의 왕권은 취약했다. 따라서 각 칼폴리 또한 정치적인 독립성을 상당부분 유지하였고 군사적인 특성도 강했다.

테파네카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츠코아틀 왕은 파격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실행했다. 먼저 틀라쉬틀란을 설립해서 왕위 선출방식을 개혁하고 왕족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했다. 또한 텍칼리를 사법적으로 장악하고 왕족을 중심으로 텍칼리 조직을 강화하면서 각 칼폴리의 행정과 재정을 포함해 군사 분야까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 개혁을 통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세력이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명실

기록에서 목테수마 왕 시기에 노인들이 전리품을 받은 귀족이나 군인들의 집을 방문해 식사대접을 받고 전리품의 일부를 구걸했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1995, 223).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외의 다른 사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소리타의 기록에서는 많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칼폴랄리를 배분받지 못해서 귀족이나 다른 칼폴리의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거나 칼폴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1941, 153). 더 나아가 구걸하는 거지도 있었다(1941, 144-145). 이처럼 스페인 정복 초기에 테노츠티틀란의 칼폴리 내에는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다. 잉카의 아이유(ayllú)와는 달리 가족 수에 따라 매년 땅을 재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칼폴랄리를 배분받는 것이 어려워졌고, 일부 사람들(상이군인, 미망인, 고아, 장애인, 노인 등)이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 시기로 소급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비해 칼폴리의 자급자족적인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기능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부한 상위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에 각 칼폴리의 장은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며 행정 관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츠코아틀왕이 시행한 정치개혁은 왕권과 중앙조직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칼폴리 집단지도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각 칼폴리가 정치적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은 칼폴리 내의 텔포츠칼리가 독립적인 군사조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군 조직과 연계된 하부조직으로 변한 데에 있다. 따라서 각 칼폴리는 정치와 사법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독립성까지 상실하며 점차 텍칼리의 행정구조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계층이 확대되고 중앙세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문 직종 중심의 새로운 칼폴리가 탄생했다. 새로운 칼폴리는 혈연과 종교, 그리고 자급자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칼폴리 개념에서 벗어나 직능이나 직종 단위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중앙정부에 종속되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새로운 칼폴리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칼폴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되었고, 점차 행정이나 조세 단위의 개념으로 변화해 갔다.

이츠코아틀왕이 공포한 법령은 평민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의 서자들에게도 전쟁 공훈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목테수마 왕은 테노츠티틀란을, 의복과 장식물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형태나 크기 등에서도 차별을 두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전환시켰다. 목테수마의 법령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 간의 서열을 명확히 하고 계급분화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를 정착시켰다. 그 기준이 전쟁 참여와 전공에 따라 결정되면서 평민뿐만 아니라 귀족까지도 전쟁에 몰입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테노츠티틀란은 멕시코 분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병영도시국가로 재탄생했다.

이츠코아틀과 목테수마 왕이 실행에 옮긴 사회 개혁은, 삼각동맹의 패권을 유지하고 정복 전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정복지의 공물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의 힘이 필요했던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쟁에 몰입하는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는 테노츠티틀란이 삼각동맹을 중심으로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거나 연합시키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단기간 내에 확대시킬 수 있었던 주요 내적 동인이었다.

참고문헌

- Acosta Saignes, Miguel(1945), “Los pochteca,” en *Acta Antropológica*, México, pp. 11-30.
- Alcántara Gallegos, Alejandro(2006), “Los barrios de Tenochtitlán: topografía, organización interna y tipología de sus predios,” *Historia de la vida cotidiana en México I*,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y FCE., pp. 167-198.
- Alva Ixtlilxóchitl, Fernando de(1965), *Obras históricas II*, México: Editora Nacional.
- _____ (1985a), *Obras históricas I*, México: UNAM.
- _____ (1985b), *Obras históricas II*, México: UNAM.
- Alvarado Tezozómoc, Fernando(1838-1853), *Histoire Mexicaine*, París.
- _____ (1992), *Crónica mexicáyotl*, México: UNAM.
- C. Vaillant, George(1992), *La civilización Azteca*, México: FCE.
- Carballal Staedtler, Margarita y Flores Hernández María(2004), “Elementos hidráulicos en el lago de México-Tenochtitlán,” *Arqueología Mexicana*, Vol. 12, No. 68, julio-agosto, pp. 28-33.
- Carrasco, Pedro(1996a), *Estructura político-territorial del Imperio tenochc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Fideicomiso Historia de las Américas y FCE.
- _____ (1996b), “La Triple Alianza: organización política y estructura territorial,” *Temas mesoamericanos*, México: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y Dirección General de Publicaciones del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Clavijero, Francisco Javier(1971), *Historia antigua de México*, México: Porrúa.
- _____ (1987), *Historia antigua de México*, México: Porrúa.
- Códice Azcatitlan*(1949), París: Sociéte des Americanistes.
- Códice Ramírez*(1979), México: Innovación.
- Durán, Diego(1867-1880),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Firme*, t.1, México: Ignacio Escalante.
- _____ (1995),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firme I*, México: Cien de México.
- E. Calnek, Edward(1980), “El sistema de mercado en Tenochtitlán,” *Economía Política e ideología en el México prehispánico*, México: Nueva Imagen, pp. 97-114.
- Erdheim, Mario(1980), “Transformación de la ideología mexicana en realidad social,” *Economía Política e ideología en el México prehispánico*, México: Nueva Imagen, pp. 195-220.
- Feliciano Velázquez, Primo(ed.)(1992), “Leyenda de los soles,” *Códice Chimalpopoca*, México: UNAM, pp. 119-128.
- Javier González, Carlos(1993), “La ciudad de México-Tenochtitlan,” *Atlas histórico de Mesoamérica*, México: Larousse, pp. 153-158.
- Katz, Friedrich(1994), *Situación social y económica de los aztecas durante los siglos XV*

- y XVI,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Lee, Jong-Deuk(2010), “Mexica JeongChak GwaJeongEui YeokSaJeok SilChe(La verdad histórica en el establecimiento del Mexica),” *Estudios Hispánicos*, No. 56, pp. 547-578.
- León-Portilla, Miguel(1990), *Los antiguos mexicanos*, México: FCE.
- _____ (1991), *Toltecatoytl: aspectos de la cultura náhuatl*, México: FCE.
- _____ (1997), *La filosofía náhuatl*, México: UNAM.
- López Austin, Alfredo(1974), “Organización política en el altiplano central de México durante el posclásico,” *Historia mexicana*, Vol. 4,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515-550.
- López Austin, Alfredo y Leonardo López Luján(1996), *El pasado indígen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FCE.
- Matos Moctezuma, Eduardo(1999), *Estudios mexicas I*, México: El Colegio Nacional.
- Obregón Rodríguez, Ma. Concepción(1995), “La zona del Altiplano central en el Posclásico: la etapa de la Triple Alianza,” *Historia antigua de Mexico III*, México: CNPCA, UNAM, pp. 265-306.
- Piña Chan, Román(1993), *Una visión del México prehispánico*, México: UNAM.
- Pomar, Juan Bautista(1939-1942), *Relación de Texcoco*, México: Chávez Hayhoe.
- Sahagún Bernardino de(1985),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México: Porrúa.
- Tena, Rafael(ed.)(2004), *Anales de Tlatelolco*, México: Cien de México.
- Torquemada, Juan de(1943), *De los veinte y un libros rituales y monarquía indiana, con el origen y guerras de los indios occidentales, de sus poblaciones, descubrimientos, conquista, conversión y otras cosas maravillosas de la misma tierra*, edición facsimilar de 1725, Vol. 5, México: Salvador Chávez Hayhoe.
- _____ (1975-1979), *Monarquía indiana*, Vol. 1, México: UNAM.
- Van Zantwijk, Rudolf(1982), “La entronización de Acamapichtli de Tenochtitlan y las características de su gobierno,”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Vol. 15, México: UNAM, pp. 2-26.
- Zurita, Alonso de(1941), *Breve y sumaria relación de los señores y maneras y diferencias que había de ellos en la Nueva España*, México: Chávez Hayhoe.

Article Received: 2011. 10. 05

Revised: 2011. 11. 06

Accepted: 2011. 11. 11